

시정이슈제안 제92호(2018-16)

# 인천 원도심 문화재생 정책방향 및 전략

최영화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yhc@ii.re.kr / 032-260-2694

- ▲ 『시정이슈제안』은 인천시정의 잠재적 시정이슈 제기, 특정분야의 시책추진방향 및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정책의 방향설정에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시정이슈제안 제92호(2018-16)

# 인천 원도심 문화재생 정책방향 및 전략

최영화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yhc@ii.re.kr / 032-260-2694

## 목 차

### Executive Summary

- I. 원도심 문화재생의 필요성
- II. 원도심 문화재생의 방향과 전략
- III. 원도심 문화재생 신규사업 및 프로그램
- IV. 정책제언



## Executive Summary

- 인천의 원도심에는 개항기의 역사·문화유산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인천시 행정의 중심지이자 금융·교통·상업·교육·문화의 중심지였으므로 근대 건축물과 가로 등 유형의 문화자원이 다수 남아있음
- 또한 원도심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원주민들의 기억과 추억 등 무형자원도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으므로 원도심의 기억과 추억, 생활사를 발굴·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간 신뢰와 유대를 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주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낙후된 원도심이 새로운 중심지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에 잠재된 문화적 가능성을 재발견하여 활성화해야 함. 즉 사회·경제·물리적 재생을 포괄적으로 지향하고, 지역공동체 역량, 지역산업 특성, 노후화 정도, 문화수요에 기반해 문화재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도심 문화재생의 정책 방향을 사회경제환경의 측면에서 ‘일상성 회복 : 원도심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효율성 강화 : 원도심 문화재생 통한 일자리 창출’, ‘장소성 발굴 : 원도심 고유자산 가치 재창출’로 설정함
- 원도심 문화재생 추진전략으로는 ‘사람 재생 : 지역공동체 중심의 원도심 문화재생’, ‘산업 재생 : 원도심 문화재생과 일자리 창출 연계’, ‘공간 재생 : 유휴공간 문화재생으로 장소가치 재형성’을 설정하여 사람과 산업, 공간의 조화로운 재생을 도모하도록 함
- 원도심 문화재생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원도심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원도심 일상생활기술 학교 운영, 청년 원도심 문화재생 프로젝트, 원도심 골목문화 재생 사업, 골목사업 및 골목상권 육성사업, 골목상권 상생공동체 형성 지원, 문화복덕방 혹은 예술부동산 운영, 주민참여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강화 에코뮤지엄 조성 등을 제시함
- 인천 원도심 문화재생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문체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제안함
- 그밖에 원도심 문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인적자원 중심, 프로그램 중심, 유휴공간 중심의 문화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수요가 반영된 지역밀착형 재생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안함



## I 문제제기 I

- 인천시 원도심에서 중심기능을 수행하던 행정기관, 학교 등이 이전함에 따라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시활동이 정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후건축물의 비율도 높아 도시공간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이 요구됨
- 이에 인천시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동인천 르네상스 도시재생, 문화창조벨트 전략계획,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인프라 조성계획 위주이며 재생 과정에 원도심 주민이 참여하기 어렵고 재생 이후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 제고 등 재생 효과를 고려한 프로그램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원도심의 지역가치와 문화정체성 및 시민의 정주권과 문화권 증진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인천시 여건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원도심 문화재생 모델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 I. 원도심 문화재생의 필요성

### 1. 문화적 도시재생의 개념

- 문화적 도시재생(Cultural Regeneration)이란 문화활동이 사회·경제·환경 부문에서 다른 활동과 함께 전략적 분야로 연관되는 재생방식임(Evans, 2005)
  - 장기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전략을 추구하거나 타 분야와 통합되는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특정 지역의 재생을 위해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등 문화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도시를 재생함
-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는 문화전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적 도시재생이 사실상 도시재생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임(이호상·이명아, 2012)
  - 문화적 도시재생은 단순히 노후시설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물리적 재생을 포괄적으로 지향하므로, 지역공동체 역량, 지역산업 특성, 노후화 정도, 문화수요에 기반해 추진해야 함

## 2. 원도심 문화재생의 필요성

### 1) 원도심 쇠퇴에 따른 사회문제 대응

- 원도심은 과거 도시의 중심지로서 도시를 움직이고 순환하게 하는 중심장소였으나, 도시 성장과 함께 중심시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함
-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도시 인프라와 삶의 질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계층 분리문제 등 사회문제를 낳게 되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함(조광호, 2013)

### 2) 원도심 지역자산의 문화가치 활용

- 인천의 원도심에는 개항기의 역사·문화유산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인천시 행정의 중심지이자 금융·교통·상업·교육·문화의 중심지였으므로 근대건축물과 가로 등 유형의 문화자원이 다수 남아있음(이현식·서동희, 2004 : 21)
- 또한 원도심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원주민들의 기억과 추억 등 무형자원도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으므로 원도심의 기억과 추억, 생활사를 발굴·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간 신뢰와 유대를 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주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3)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동력 확보

- 미국의 도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창조도시의 원동력으로 문화예술 인의 집적과 문화정체성을 제시함. 즉,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의 기능을 재활성화할 수 있음
- 낙후된 원도심이 새로운 중심지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에 잠재된 문화적 가능성을 재발견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재생의 동력이자 자원, 주체로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창의인재를 발굴·육성해 지역에 거주하며 활동하도록 지원하거나 원도심 안에 새로운 문화적 동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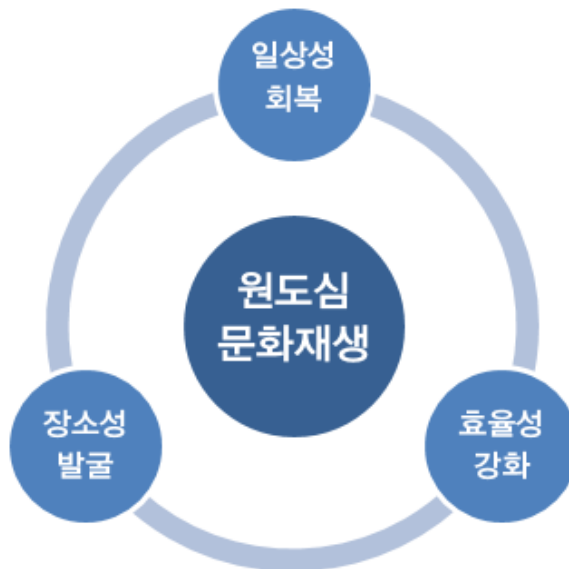


## II. 원도심 문화재생의 방향과 전략

### 1. 원도심 문화재생 정책방향

- 1) [문화+사회] 일상성 회복 : 원도심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 원도심에 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
  - 원도심 생활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참여형 지속가능한 재생 모색
- 2) [문화+경제] 효율성 강화 : 원도심 문화재생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존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해 적은 예산으로 원도심 활력 증진
  - 원도심 문화재생과 관련한 창업, 창직,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 3) [문화+환경] 장소성 발굴 : 원도심 고유자산 가치 재창출
  - 지역커뮤니티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공간 및 건물 보전·재활용
  - 원도심에 산재한 근대 건축물과 유희공간의 문화적 장소가치 재구성

[그림 1] 원도심 문화재생 추진전략



## 2. 원도심 문화재생 추진전략

### 1) [문화+사회] 사람 재생 : 지역공동체 중심의 원도심 문화재생

- 물리적 공간 재생보다 비물리적 공동체 재생을 지향하며 재생의 방법, 대상, 영역, 절차가 문화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재생을 지향함
  - 주민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활동가 단체가 주도하고 공동체 원리를 반영하여 문화교육복지 등과 같은 비물리적 요소들을 재생
-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문화재생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정착 의지, 공동체적 관계성을 확대하며 상생할 수 있는 조건 형성
  - 원도심의 여건과 자원을 토대로 원도심 주민 간 관계를 일깨워주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문화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

### 2) [문화+경제] 산업 재생 : 원도심 문화재생과 일자리 창출 연계

- 원도심 재생이 외부적 재생이 아니라 내부적 재생이 되려면, 재생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재생을 주도하는 민간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
  - 문화재생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역량이 재생의 원동력이자 인적,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도심 재생의 성과가 지역에 환원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생과 경제재생 간 통합적인 융합이 필요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도시경쟁력 제고 효과를 높임

### 3) [문화+환경] 공간 재생 : 유희공간 문화재생으로 장소가치 재형성

- 원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유희공간이나 노후건물, 골목길 등의 문화적 재생을 통해 장소 가치와 공간 정체성을 재발견함
  - 장소에 기반한 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간적 장소성이 지역문화와 결합해 도시재생의 효과가 파급되도록 함
  - 유희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여 생활문화·문화창작·문화향유·문화산업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III. 원도심 문화재생 신규사업 및 프로그램

#### 1. 원도심 문화재생 신규사업 제안

##### 1) 문화+사회 재생 신규사업

##### ■ 원도심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 원도심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원도심에 다종다양한 유형의 생활문화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정주의식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색
  - 기존의 동호회 중심 생활문화 지원사업에서 탈피하여 1인가구, 2인가구, 다문화가구 등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지원대상 확대
  -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1차년도에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단계적 확대

##### 원도심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주요 내용

- 1인가구 살림공동체 : 1인가구 거주자가 '살림'을 주제로 느슨한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지원(1인가구 살림법(집단장, 요리, 청소, 건강 관리 등 공유))
- 2인가구 육아공동체 : 생활권을 공유하는 2인가구 대상 대안적 육아공동체 형성 및 운영 지원
- 다문화공동체 : 원주민과 이주민 간 생활문화를 토대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지원 : 공모건수별 300만원 x 20팀 = 6,000만원

- 원도심 일상생활기술학교 운영
  - 은퇴 후 고독하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생활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가구, 다양한 생활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나 활동 기회가 부족한 원도심 주민을 연결해 주민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기존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이나 취직 관련 기술교육 외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상생활기술을 나눔으로써 '따로' 또 '함께' 잘 사는 방법을 학습함
  - 주민이 강사가 되어 분야별 보유 기술(일상생활, 독립생활(자립생활), 공동생활 필요기술)의 노하우를 이론적·실질적으로 전수함
  -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1차년도에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단계적 확대

**일상생활기술학교 사업 주요 내용**

- 일상생활기술 분야별 주민강사 모집(공모 방식과 추천 방식 병행) 후 프로그램 기획
- 주민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강의와 실습에 필요한 교수법 등 교육)
- 생활문화센터 등 공동체 공간을 활용한 주민주체 주민참여형 일상생활기술학교 운영
  - 일상생활기술 : 돈 관리, 배움기술, 손 기술, 정리기술, 생활체력 기술
  - 독립생활기술 : 소규모 자영업 창업·창직 기술, 프리랜서 활동 기술 등
  - 공동생활기술 : 함께 살기 기술, 공동주거, 공동직장, 취미동호회 등 각종 공동체 운영 기술
- ※ 일본의 공민관 사례 참고

**2) 문화+경제 재생 신규사업**

**■ 청년 문화재생 일자리 창출 사업**

- 청년 원도심 문화재생 프로젝트
  - 건축·디자인·문화 등 다전공자로 구성된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원도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기획·공모·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재생 참여와 역량을 키움
  - 청년층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건축디자인·문화재생 참여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및 낙후지역 환경 개선을 도모
  - 창조적인 문화인력이나 전문가를 외부로부터 유입해서 진행하는 일회성 프로젝트로는 지역밀착형 문화재생을 이루기 어려우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우므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인재를 발굴해 지역에 거주하며 원도심 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1차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 확대 추진

**청년 원도심 문화재생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주제 : 문화적 디자인과 프로그램으로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
- 내용 : 사회적, 물리적 환경 개선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
- 대상 : 디자인·인문사회·건축·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생 이상 전공자 5인 이상의 팀 및 단체
- 지원 : 프로젝트 당 3,000만원 x 5팀 = 15,000만원

❖ 원도심 골목문화 및 골목상권 재생 사업

○ 원도심 골목문화 재생 사업

- 골목길은 주거와 상업활동이 뒤섞이면서도 거리가 짧고 촘촘하게 이어져 있고, 낮은 건물과 신축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모이게 된다는 점에서 골목문화와 골목상권, 골목산업을 재생하는 동력이자 자원이 될 수 있음(제이콥스, 2010)
-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지역은 대부분 골목길로 이루어진 원도심 지역이므로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에서 골목상권 재생은 핵심사업임. 원도심의 고유자산 중 하나인 골목길을 활용하여 골목문화와 독립문화를 재생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과 골목산업, 새로운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필요 있음(모종린, 2017)
- 청년 인재들은 도심에서 살고 일하며 즐거기를 원하므로, 원도심 골목을 예술과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재생하여 스타트업 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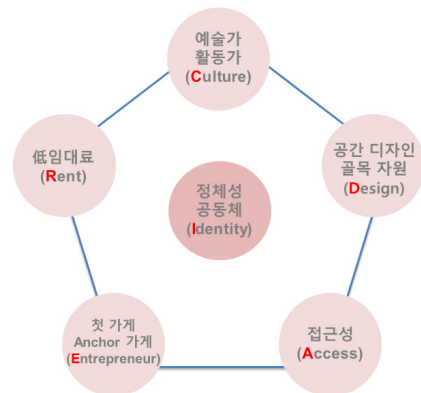
**원도심 골목문화 재생사업 주요 내용**

- 골목문화자원 및 골목 정체성 발굴 : 골목 탐험대(골목자원 탐사발굴), 골목자원 아카이빙
- 골목문화재 지정 : 골목유산, 주민이 가꾸는 아름다운 골목, 걷고 싶은 골목 등 지정 및 홍보
- 골목역사문화공간 활용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골목길 놀이터, 쉼터, 모임터, 공유공간 조성
- 골목길 문화예술 프로그램 시범 운영 : 골목길 사진전, 문화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네트워크 파티
- 골목의 재발견, 도시재생 프로젝트 운영 : 도시재생 스타트업 유치, 지역활동가 육성
- ※ ‘로켓펀치’(스타트업 네트워크 사이트, [www.rocketpunch.com](http://www.rocketpunch.com)) 참고

○ 골목사업 및 골목상권 육성사업

- 성공한 골목상권은 공통적으로 문화인프라(culture), 임대료(rent),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접근성(access), 도시디자인(design), 정체성(identity)이라는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이 중에서 문화자원과 문화정체성이 골목상권의 핵심 경쟁력임(모종린, 2017 : 330)
- 즉, 뛰어난 창업자(E)가 접근성(A)이 좋고 골목자원(D)과 문화자원(C)이 풍부하지만 임대료(R)가 짠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이를

[그림2] C-READI 모델 : 골목상권 성공조건



자료 : 모종린(2017), 330쪽.

본 다른 창업자가 주변에서 새로 가게를 열어 지역만의 정체성(이)이 뚜렷한 하나의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침

- 골목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인재와 자원을 연결해 매력적인 골목문화를 만들어내야 함. 특히 지역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특색 있는 문화기획, 사회적기업, 골목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는 소상공인과 지역활동가를 육성해야 함

#### 골목사업 및 골목산업 육성사업 주요 내용

- 지역예술가·창업가·소상공인 네트워크 통한 혁신 창업 지원 : 창업지원센터 및 협업공간 지원
- 폐공간 문화재생 통한 상업시설 유치 : 광주 쿡폴리 사업 참고
- 골목사업가 및 골목활동가 육성 지원 : 교육, 훈련, 취업, 창업 지원
- 골목사업가 모임 지원 : 사업가 네트워크 지원

○ 골목상권 상생공동체 형성 지원

- 주민, 상인, 예술가, 청년창업가, 활동가와 시민단체 등 골목길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골목문화를 만들어가며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
- 원천경쟁력을 갖춘 장인 가게와 건물주,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으로 골목상권의 장기이익을 추구하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골목상권 상생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골목상권 상생공동체 형성 지원

- 골목상권 임대료 안정 위한 건물주·임차인·지자체 상생협약 체결
- 소상공인 위한 앵커시설 대여
- 장기 안심상가 운영
- 소상공인 상가 매입 지원

### 3) 문화+환경 재생 신규사업

#### ■ 원도심 청년예술가 창작공간 임대사업

○ ‘문화복덕방’ 혹은 ‘예술부동산’ 운영

- 인천에는 4년제 대학에 예술학과가 있고 매년 예술 전공자를 배출하나, 실제 현장에 남는 예술가들은 많지 않음. 주로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활동공간을 찾아 옮김에 따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줄어들고 지역문화의 활력도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음

- 청년예술가들이 인천을 기반으로 역량을 키워 자립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창작공간 제공
-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공실화된 건물을 시에서 임대하여 청년예술가에게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하되, 건물주와 협약을 맺어 장기적으로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곳을 만들자는 취지로 사업 추진
- 1차년도 공간 무상임대, 2차년도 임대료 50% 지원, 3차년도 퇴실 또는 스스로 임대료를 납부하며 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예술가의 자생력 확보 지원
- 원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이 활성화되어 인근 상가나 건물의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에서 민간건물을 임대하되, 장기적으로는 원도심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지닌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 상승에서 자유로운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청년예술가들은 공적자원을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문화적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사업 목표 설정

**문화복덕방 사업 주요 내용**

- 원도심 유희공간 재생 위한 주민상생협약 체결
- 공실화된 사무공간 등 임대 및 소규모 리모델링
- 문화예술 임대공간 리스트 제공 및 관리
-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가 입주 공모
- 입주작가 창작프로그램(전시·공연 지원, 거리문화행사 등) 지원
- 입주작가 ‘시민참여 지역커뮤니티 사업’ 추진

**[참고]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 부산 중앙동과 동광동 일대에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원도심 문화공동체 프로젝트. 문화예술 전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거주하며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예술인과 시민이 공생하는 유기적 도심공동체 조성
- 또따또가는 관용, 배려,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톨레랑스(Tolerance)에서 ‘또’를 차용하고 ‘따’로 활동하지만 ‘또’ 같이 활동한다는 의미와 거리나 지역을 나타내는 한자 ‘가(街)’를 합성해서 우리말로 표현한 것

[그림 3] 또따또가



<표 1>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구분	내용
사업명칭	원도심 창작공간(또따또가) 운영지원 사업
사업장소	부산시 중구 일대 / 운영지원센터 : 부산시 중구 40계단길 10 3층(중앙동 3가)
사업기간	2010년-2012년(1차사업), 2013년-2015년(2차사업), 2016-2018(3차사업)
사업규모	23개 건물 77실
입주현황	개인작가 38명, 단체 31개(198명) / 총 236명 활동 중
사업주체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사업주관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협업을 유도하는 도심형 창작공간</li> <li>•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li> <li>• 임대료 지원 외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시설 운영을 위한 자생력 확보</li> <li>• 건물주와 민간 메세나와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 마련</li> <li>• 지역 기관 및 문화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조성</li> <li>• 원도심 문화자원을 발굴 및 보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참여</li> <li>• 국내,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예술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영역을 확대</li> </ul>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작가 공모 : 신규 입주 공모 사업, 자립작가 지원사업</li> <li>• 창작프로그램 지원 : 입주작가 전시·공연 지원, 거리문화행사, 또따또가 예술문화축전</li> <li>• 지역커뮤니티사업 : 시민문화예술교육, 골목프로젝트</li> <li>• 네트워크사업 : 학술행사, 국내외 교류사업</li> <li>• 홍보사업 : 오픈행사, 원도심 문화탐방, 평가</li> </ul>

자료 : 또따또가 홈페이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2018.02.06. 검색

			
모던타임즈 거리연극	또따또가 예술시장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 창립기념 전시회	거리콘서트
2017.06.23.	2017.06.28.	2017.10.26.	2017.05.17.

자료 : 또따또가 홈페이지, 2018.02.06. 검색

[그림4] 또따또가 활동사례



❖ 원도심 유희공간 재생 공공공간 조성

- 주민참여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참여·주민주도 마을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해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보유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수선, 자수, 수공예, 목공예, 도자공예, 칠공예, 가드닝(도시농업) 등 다양한 수공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지역장인을 발굴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청년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연계해 지역상품을 주민들과 함께 제작하고, 이것을 유통시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재생에 환원하도록 함

**주민참여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주요 내용**

- 원도심 거주 숨겨진 마을장인 발굴 및 사업 참여
- 지역주민 대상 수작업 교육·제작·판매·전시
- 유희공간 재생 통한 마을예술 창작소(공방, 워크숍) 조성
- 팝업스토어, 아트숍(마을예술상점) 운영

❖ 지역유산 활용 주민참여형 문화거점 구축

- 강화 에코뮤지엄(eco-museum) 조성
  -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 또는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의 문화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미비
  -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으로서 강화갯벌은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함. 강화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잘 보전하고 관광 등 관련 분야와 적극적으로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이 요구됨
  - 에코뮤지엄이란 생태·주거환경을 뜻하는 ‘에코(eco)’와 박물관의 ‘뮤지엄(museum)’을 결합한 단어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유산을 주민들과 함께 가꾸고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을 일컫음
  - 에코뮤지엄은 전통적인 박물관과 달리 유형의 박물관 건물 내에 소장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일정한 영역에 산포되어 있는 유·무형의 유산을 수집·보호·활용하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목적이나 배경에 따라 생태박물관, 환경박물관, 지역박물관, 민속박물관, 지역공동체박물관, 참여박물관, 생활사박물관 등으로 불림

**강화에코뮤지엄 조성 사업 주요 내용**

- 강화도 지역 정체성 제고 사업(자연생태·역사문화·생활문화 자원 발굴)
- 강화에코뮤지엄학교 운영 통한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주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생태·역사·문화예술 특화 문화마을, 문화지구 신청 통한 예산 확보 및 브랜드 구축
- 지역스토리텔링 기반 투어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 유희시설(폐 창고 등) 문화재생 통한 지역생활사박물관 조성



선감역사박물관



제주도 아트파크



화성 매항리 스튜디오



시흥 소금창고

[그림 5]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례

자료 : 경기만 에코뮤지엄 홈페이지(2018.02.05. 검색)

## 2. 원도심 문화재생 프로그램 제안

- 마을장인 발굴·장인마을 육성 프로그램 ‘우리 마을장인 찾기’
  - 골목산업 특화 분야를 선정해 골목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특정산업의 장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이미 각 분야의 연륜 있는 자영업자들과 은퇴한 마을장인을 발굴해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받는 명장으로 육성

### III. 원도심 문화재생 신규사업 및 프로그램

- 1세대 장인이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훈련생들에게 전수해 2세대 장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마을장인, 골목장인을 배출하고 문화사업 창업과 골목상권 유지를 도모하여 장인마을을 육성함
- 골목문화사업 육성·지원 프로젝트 ‘오라차차 문화포장마차’
  - 인천시가 확보하고 있는 원도심 골목의 공·폐가를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적 디자인을 지닌 상업공간으로 재생한 후 청년상인, 소상공인, 청년창업단체 등에 저렴하게 임대함
  - 원도심 지역 기존 소상공인의 지지를 확보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상업시설을 물색한 후, 장소성과 재생건물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사업기획을 공모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함
  - 거대한 복합문화공간 대신 생활권 내 소규모 문화상업공간으로 조성해 문화시설로서 공적 기능을 일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원주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함



[그림 6] 광주 쿵폴리 사례

자료 : 골목길 경제학자 홈페이지(2017.05.28.).

## IV. 정책제언

### 1. 중앙정부 도시재생사업 연계 추진

#### 1)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넘어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혁신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포괄하며, 공동체 활성화와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국토교통부, 2018.04.24.)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①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로 구분됨
  - 사업모델 중 ‘일반근린형’과 ‘중심시가지형’은 원도심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함

〈표 2〉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사업내용
우리동네 살리기	• 생활권 내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 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 지원형	• 원활한 주택 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
중심시가지형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
경제기반형	•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영커시설 구축 등 신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

출처 : 국토교통부(2018.04.24.), 18쪽.

-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인천 원도심의 문화재생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 문체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와 연계해 원도심 문화재생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사업내용은 ‘공공공간’의 문화적 장소가치 생성 및 정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이며, 원도심의 공공공간을 문화앵커장소로 재구성하기 위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함
  - ‘공공공간’은 원도심 내 위치하여 공공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실내외 유희공간, 광장, 공원, 골목길, 지하보도, 수변공간 등 시민의 문화활동 및 이를 위한 사용이 가능한 영역으로서의 다중이용공간 및 시설, 오픈스페이스, 구역 등을 모두 포괄함

〈표 3〉 20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8.03.~12.
사업내용	· 지역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장소가치 기반의 문화활동 및 장소성 재구축(조성) 작업의 사업 지원
사업대상	·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예산	· 1개소 당 국비 80백만원 내외(민간경상보조) / 지자체 50% 이상 필수 매칭 - 1개소 당 총사업비는 1.6억원 기본 구성(국비 80백만원 / 지방비 80백만원 내외)
지원내용	· 도시 안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장소기반의 문화가치를 만드는 문화기획 및 활동과 공간 및 장소디자인 작업에 대한 종합 지원 (공공장소의 문화적 재구성 지원) - 휴먼웨어(전문인력) - 소프트웨어(문화기획 및 프로그램 시범운영) - 하드웨어(공간디자인) 종합 지원을 통해 장소 기반의 지역문화 정착 추진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문화사업과 연계·복합 시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므로 기존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문화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함
  - 문체부 지역문화사업(생활문화 활성화, 문화가 있는 날, 문화특화지역 조성,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 문화영향평가 등)과 연계 시 우선 검토
  - 지역 문화기관 및 단체에서 원도심의 문화적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과 연계·복합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 우선 검토

## 2. 원도심 문화재생 시범사업 추진

### 1) 인적자원 중심 문화재생 사업

- 원도심 지역문화인력 참여 지원
  -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문화기획자, 문화활동가,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원도심 문화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함
  - 지역문화인력이 원도심 문화재생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여건 및 자원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과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수요가 반영된 지역밀착형 재생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원도심 문화재생의 동력인 인적자원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머무르고 새로이 유입되면서 원도심 문화생태계의 창조적 기반이 강화됨

### 2) 프로그램 중심 문화재생 사업

- 원도심 주민참여 문화재생 프로그램 운영
  - 물리적 재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며 재생의 효과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프로그램 중심의 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임
  - 원도심 거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재생 사업에 기획자, 교육자, 운영자, 매개자, 사업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정주의식, 공동체의식을 키우도록 함

### 3) 유희공간 중심 문화재생 사업

- 유희공간 리모델링 통한 공공장소 조성
  - 원도심에 방치된 유희공간을 발굴하여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공공문화시설로 재생함으로써 주민 간 일상적 소통과 창의적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원도심에 청년인재들이 유입되고 새로운 문화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 기능을 도입함

## 참고문헌

### ■ 단행본

- 모종린(2017), 『골목길 자본론』, 다산북스.  
제인 제이콥스(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 ■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 경기문화재단(2016), 『문화재생포럼 호시탐탐』.  
조광호(2013),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호상·이명아(2012),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vol.10. 171~183쪽.  
이현식·서동희(2004), 『인천 구도심의 문화적 재생과 미술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Graeme Evans(2005), “Measure for Measure : Evaluating the Evidence of Culture’s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Urban Studies*, Vol.42, Nos. 5/6, pp.1~25.

### ■ 행정자료

- 국토교통부(2018.04.24.),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 ■ 기사

- 골목길 경제학자(2017.5.28.), “광주 골목길을 위한 공공미술과 장진우 식당의 콜라보”.  
〈브런치〉, <https://brunch.co.kr/@riglobalization/12>

### ■ 홈페이지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gcf.kr](http://www.ggcf.kr)  
골목의 재발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EdiscoveryAlley.Bpl>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bscf.or.kr>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창작공간 홈페이지. <http://tttg.kr/xe>

